[redacted]

스테로이드 사용후 발생한 악성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경피증 신발증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신장내과

김명규 · 김정엽 · 고강지 · 정혜원 · 성수아 · 조상경 · 조원용 · 김형규

서 론 : 경피증 신발증 (scleroderma renal crisis)은 전신성 경피증 (systemic scleorsis)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변으로 대부분 악성 고혈압 및 이에 동반된 급성 신부전의 양상을 보이며, 최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급격한 혈압상승과 함께 고혈압성 뇌증, 심부전,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및 신부전을 동반하나, 약 10%정도에서는 정상혈압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내원 전 스테로이드 등의 복용력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악성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경피증 신발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63세 여자 환자로 전신부종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개월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및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복용한 기왕력이 있으며, 내원시 혈압은 160/90 mmHg정도였으나 이뇨제 투여후 120/80 mmHg이하로 정상화되었다. 혈청학적 검사소견상 homogenous, nucleolar 형의 항핵항체가 1 : 2560이상으로 양성소견 보였으며, anti-SCL 70항체도 양성이었다. 혈청 renin 활성도가 11.52 ng/ml/hr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흉부 방사선 및 컴퓨터 단층촬영상 양측 폐하부에 망상결절형의 불규칙한 음영증가소견 관찰되었다. 말초혈액 도말검사상 용혈성 빈혈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내원후 지속적으로 소변양 감소하고 혈청 요소질소 및 크레아티닌의 상승소견 보여 시행한 신장조직검사상 엽간동맥 내막에 악성 고혈압시에 관찰되는 전형적인 양파껍질모양의 섬유성 비후와 함께 내경 협착소견 보여 경피증 신발증으로 진단하였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차단제로 치료 시작하였으나, 신기능의 지속적인 악화로 혈액투석 시작하였고 심근염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 및 간질성 폐질환 등이 발생하여 세포독성 치료 시작하였으며 현재 경과관찰 중에 있다.

결 론 : 스테로이드 복용 중 발생하였고 임상적으로는 악성고혈압 및 이에 동반된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등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피증 신발증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